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사문품(沙門品) ②

手足莫妄犯 수족막망범
節言順所行 절언순소행
常內樂定意 상내락정의
守一行寂然 수일행적연

손 발을 놀려 나쁜짓 않도록 하고
말을 절제하여 행을 조심하며
마음이 항상 선정을 즐거워하면
한마음 간직해 맑고 고요하리라

學當守口 학당수구
宥言安徐 유언안서
法義爲定 법의위정
言必柔軟 언필유연

마땅히 입조심하기를 배우고
말이 너그럽고 편안하면
법다운 이치가 절로 머물게 된다
말은 반드시 부드러워야 한다

樂法欲法 낙법욕법
思惟安法 사유안법
比丘依法 비구의법
正而不費 정이불비

법을 즐겨 행하고자 하고

滅行乃安 멸행내안

비구가 자비를 행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공경하면
쉼과 비춤이 깊어지리니
번뇌 사라져 편안하리라

一切名色 일체명색
非有莫惑 비유막혹
不近不憂 불근불우
乃爲比丘 내위비구

온갖 것은 다만 이름이요
헛것있는 게 아니니 미혹되지 말라
명색을 가까이 않고 근심 없으면
그야말로 비구라 하리라

比丘船 비구호선
中虛則輕 중허즉경
除婬怒癡 제음노치
是爲泥洹 시위니원

비구여 배 안의 물을 퍼내거라
배가 비면 가벼워지리니
음욕·성냄·어리석음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된다

捨五斷五 사오단오

손발 놀려 나쁜짓 않도록 하고 말이 부드러우면 법이 절로 머문다

조용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삶은 바르고 힘들지 않으리라

學無求利 학무구리
無愛他行 무애타행
比丘好他 비구호타
不得定意 부득정의

잇속 구하기를 배우지 말고
남들이 하는 잡된 일을 좋아하지 말라
비구가 다른 일을 좋아하면
고요한 마음을 얻지 못하리라

比丘少取 비구소취
以得無積 이득무적
天人所譽 천인소예
生淨無穢 생정무예

비구는 무엇이든 적게 취하여
그것을 쌓아 두고자 하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의 기림을 받고
그 삶은 깨끗하여 더러움 없으리라

比丘爲慈 비구위자
愛敬佛敎 애경불교
深入止觀 심입지관

思惟五根 사유오근
能分別五 능분별오
乃渡河淵 내도하연

안팎으로 다섯가지 욕망을 끊고
오관의 뿌리를 생각해
능히 오온을 분별할 줄 알면
곧 생사의 못을 건너리라

禪無放逸 선무방일
莫爲欲亂 막위욕란
不呑洋銅 불탄양동
自燃燋形 자뇌초형

선정을 닦아 방일하지 않고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하라
번뇌의 끓는 구리쇠를 마시지 말라
스스로 괴롭혀 몸을 불태우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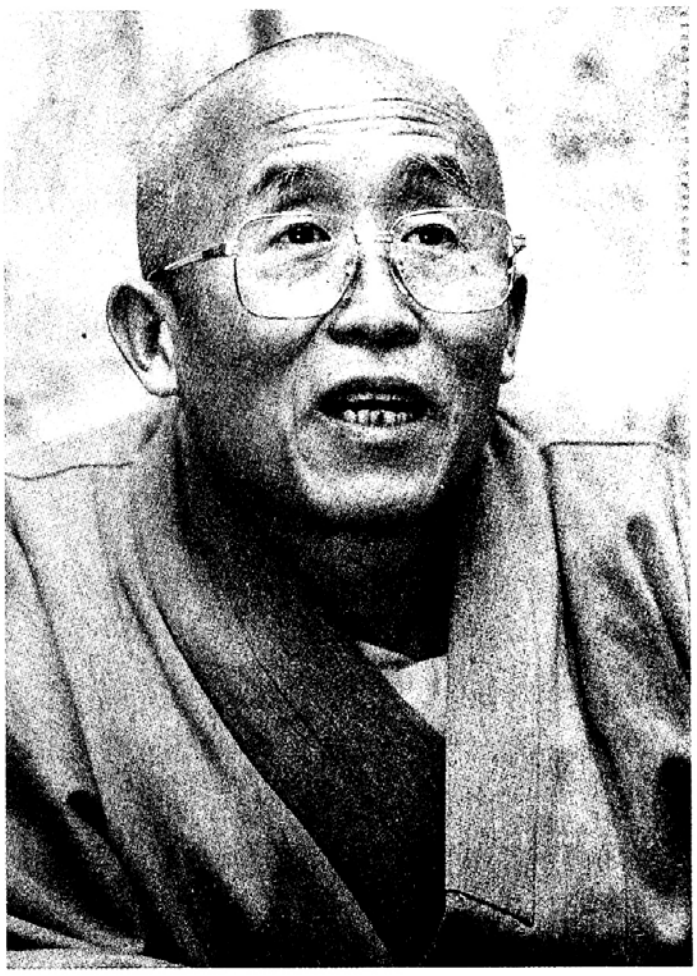
無禪不智 무선불지
無智不禪 무지불선
道從禪智 도종선지
得至泥洹 득지니원

선정이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 없으면 선정도 닦을 수 없다
도 닦는이는 반야의 지혜를 좇아
열반에 이르게 되느니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불경에 성불의 길 있으니

월운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약력
- 1928년 경기 장단 生
-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卒
- 57~61년 통도사 강사
- 65년 해인대(마산대) 철학과 卒
- 79년 중앙승가대 교수
- 봉선사 주지 역임
- 現 남양주 봉선사에 주석

불법을 배우고 믿고 체험하면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연속입니다 자신을 불법속에 묻고 살면 교학이론 잊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편리하고 즐겁게, 등따시게 사는 것들이예요. 생각이 나 위주로 국한되면 아상에 빠집니다. 아상이 생겨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못맞추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되지요. 이를 이기는 방법은 어려움을 참고 고행함으로써 업장소멸을 하는 것이예요.

고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견고행(邪見苦行)은 안되고 내가 힘들다고 고행이라 생각해도 안됩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믿는 고행은 정견 고행이요, 선인선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면 사견고행입니다. 나를 아름답고 빛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견고행이지요. 남이 공들인 것을 슬쩍 꿀꺽해 버리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견입니다.

부처님은 선업에는 선과가 오고 악업에는 악과가 온다는 인과법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정직한 형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형의 모친이 밤 한 되를 삶아 주고는 너는 먹지 말고 동생에게 다 먹이라는 말을 하고 출타를 하셨어요. 모친이 돌아와 보니 형은 하나도 안 먹고 동생에게 삶은 밤을 억지로 먹이더랍니다. 이렇듯 정직하고 착한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악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닦아라 악을 멀리 하라는 말이 시일이 지나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얼만큼 선을 닦았는지 얼단름 악을 멀리했는지 집착이 생겨요. 이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반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부처님이 설법하신 인과법문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사견을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침착하고 조용해야만 해요. 진정한 자기에 눈을 뜨게 되면 타인의 괴로움이 곧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예요. 이 지혜와 자비를 완전하게 갖춘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고 어느 한 쪽에도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양극인가를 제대로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실천기준이 있지 않으면 자칫 관념의 함정에 빠져 헛된 삶을 살기 십상이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중도의 함정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마련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처지에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움없는 삶을 영위하려 노력한 결과 오늘의 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의 난관을 종교에 의지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지요.

나는 가끔 불법을 배우고 이를 믿고 체험해 가는 가운데 형용키 어려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이며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불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법 속에 파묻어 버리므로 어려운 교리나 개념은 잊어도 문제시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불법따라 사는 것을 잊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요. 진심으로 법에 살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열일곱살 되던 해였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내 속가집은 유달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희망없이 사느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업은 채 집 떠나는 나를 따라 오셨어요. 그 무렵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산자락에 도랑이 흐르고, 돌다리를 건너면 집이 보이고 아련한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꿈이였어요. 똑같은 꿈을 하도 여러번 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 고향인 장단(판문점 근처)에서부터 떠돌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남해 화방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늘 보던 곳이었으니까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꿈에 느껴지던 그 냄새도 똑같았습니다. 그 냄새는 잡목을 태우는 냄새였어요.

화방사에 있으니 그리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불경을 접했지요. 그때까지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경을 보니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금강경 오가해·金剛經五家解〉가 머리 속에 쏙 박혔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한학자인 재당숙에게 10여년 동안 한문책을 두루 익힌 덕에 그 어려운 한문 경전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지요. 한문 경전을 줄줄 읽는 나를 눈여겨본 스님들이 당신들의 양식을 내 몫으로 주시면서 화방사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곳 스님들이 출가를 권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출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방사에서 장작 패고 지붕 수리하고 담장 고치고 공양 준비하는 일 등을 하면서 틈틈이 불경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라기보다는 일할 것이 눈에 띄면 배운다는 생각으로 찾아서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때가 바로 행자생활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화방사에 자리잡은 것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서너 해동안 화방사에 머물렀지요.

그 무렵 화방사에는 열분 남짓한 대처승들이 머물며 조석 예불을 드리는 외에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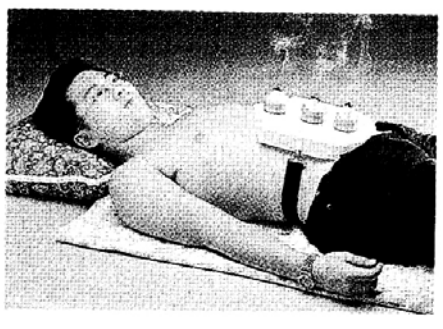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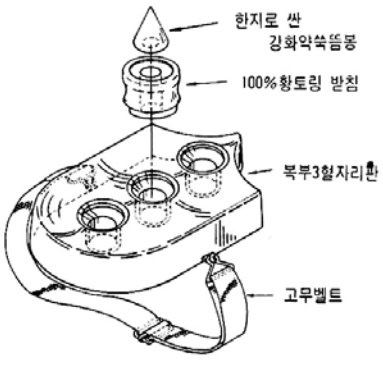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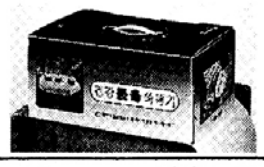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보급가격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